불자 세상보기

사드배치 결정과 요동치는 한반도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지난 7월 8일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 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양국은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말쯤 사드배치문제를 최종결정할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한미 공동실무단의 운용결과 보고서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드배치를 전격 발표한 배경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 2270호가 이행 중인 가운데도 북한이 괌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는 등 북한의 핵미사일능력이 고도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최고지도자들이 나서 한반도에서의 사드배치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등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이 강화되자 배치결정을 앞당기고 우리의 대북 핵미사일 억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안보우선주의 관점에서 사드배치를 둘러싼 남남갈등 조짐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여론을 설득해 나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7일 미국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유린혐의로 첫 제재대상으로 올린 직후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를 전격 발표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미국이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 대상으로 지명한 것은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으로선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한국의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사드배치를 결정하고, 나아가 미국주도의 미사일방어(MD)체계에 한국을 끌어들여 중 한미 양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일본은 환영했고, 중국은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을, 러시아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제 북한 핵미사일위협으로부터 촉발한 사드배치문제가 동북아 전략구도에도 영향을 주면서 '한 · 미 · 일' 대 '북 · 중 · 러'의 '신냉전' 구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중국과 미국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고 중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 · 중 간의 '신형대국관계'가 형성된 점을 고려할 때 냉전시대처럼 양진영으로 나뉘어 본격적으로 대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한반도 사드배치를 계기로 미국이 MD체계 구축을 본격화할 경우 신냉전적 갈등구조 형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개발 포기를 위해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이어 사드배치를 결정함으로써 군사적 선제공격 옵션을 제외한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카드를 사용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한다는 안보우선론의 관점에서 사드배치 결정이 이뤄짐으로써 대중국, 러시아 관계 악화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핵미사일개발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공언하면서 실전배치를 서두르는 지금, 경제 등 다른 부분에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사드배치를 서둘 수밖에 없다는 안보우선논리를 펴고 있다. 복합적 상호의존성의 시대 외교적 수단을 통한 북핵해결 노력을 포기하고 군사안보위주의 끝장게임(End game)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드배치문제로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과 갈등할 경우 북핵 압박공조를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 대북 압박공조가 깨지고 신냉전구도가 형성되는 것을 바라는 나라는 북한뿐일 것이다. 신냉전구도가 형성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껴안기를 본격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력을 갖추는 해법은 이스라엘 방식의 독자적인 미사일방어 등 대공방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드배치로 입을 경제적 손실과 비용을 감안한다면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앞당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대화를 통한 해법을 찾는 것이다.

발언대

삼귀의 '귀의승' 해석 논쟁

한글 삼귀의보다 수행 · 지계에 마음 쓰자



법현 스님
열린선원장

한글 삼귀의 가운데 세 번째 '귀의승 중중존'의 우리 말 번역에 관해서 이야기가 많아서 몇마디 해본다. 한글 삼귀의가 잘못되어서 현재 특정종단을 중심으로 한 한국불교 승단이 타락하였다고 주장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결론부터 말하면 승려들의 타락은 승단 및 사회 분위기 그리고 개인의 일탈행위 등에 원인과 배경이 있다. 그것을 한글 삼귀의 가운데 세 번째 '귀의승' 해석이 잘못되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안이한 해석 아닐까?

본인이 소속한 종단이거나 특정 종단이어서 범계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비판하거나 변호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계를 줄 때에 전계사께서 해주시는 말씀과 율장에 의하면 때때로 주의를 기울이고 함께 되새기면서 지계의식을 일깨우는 것은 바람직하고 권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포살이다. 모여 살면서 스스로의 부족함과 다른 이의 모자람을 살펴서 반성하고 바로잡아주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자자이다.

'삼귀의가 아니라 이귀의'라는 말이나 '스님들에게 귀의하면 안 된다'거나 '승가에, 상가에 귀의한다'는 표현에는 더 살펴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런 견해들을 접하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단체인 상가나 승가를 귀의대상인 승보로 하든,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쌍팔배를 승보로 하든 우리말로 옮길 때는 앞의 불보, 법보처럼 다 옮겨 같은 기준과 표현으로 써야 한다고.

우리말 삼귀의 탄생 배경은 더 살펴야겠으나 말과 문장구조, 교리적으로 보아도 잘한 옮김이다. 그냥 스님이나 스님들이 아니라 거룩한 스님. 스님들은 귀의의 대상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것이 그저 '스님'이 아니라 '거룩한 스님들'이므로 단체를 규정한다는 개념에도 맞는다.

현재의 승려, 승려들, 승단에 관한 지율, 수학, 수행에 관한 비판은 필요할지 몰라도 우리말 삼귀의의 세 번째 '귀의승'를 부정하는 것은 다시 살피기를 한 번 더 제안한다. 한글 삼귀의 문장에는 부처님과 가르침에도 들어있는 '거룩한'이 스님들께도 똑같이 들어 있다.

그냥 스님이 아니라 거룩한 스님 그것도 단수의 스님이 아니라 복수의 거룩한 스님에게 귀의하는 것은 빠알리어의 상가와 견주어 어긋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승려를 포함한 불자들의 지계의식 저하는 다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승속 모두에게 금하고 있는 행위들을 승속 모두 내놓고 하거나 숨기고 하거나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5계인 '살도음망주'는 승속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인데 지키는 이들이 많지 않는 게 저간의 현실이다.

불교의 구성을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승단 · 승가 · 상가)에 관한 믿음의 종교라고 정의할 때 삼귀의를 온전히 하고 5계를 수지하는 이를 일러 불자라고 한다. 더 나아가 10계를 지니면 예비 승려인 사미, 사미니라 하고 250, 348등 구족계를 수지하는 이를 비구, 비구니라 한다.

초기불교, 상좌부 불교의 입장이든 대승불교, 대중부 불교의 입장이든 자신의 지향점과 소속을 가지게 되면 스스로 그 교단의 계율을 지니고 충실히 따르면 된다.

부디 한글 삼귀의는 그대로 두고 다른 것을 주제로 삼아 비판했으면 좋겠다. 아울러 대안을 제시했으면 한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대학불교네트워크' 추진에 거는 기대

현직 불자교수들이 각 신행포교 단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 포교 활동을 일원화하기 위해 '대학불교네트워크'를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이하 교불련)가 추진하는 '대학불교네트워크'는 침체 위기의 대학생 포교를 되살리기 위한 자구책이다. '대학불교네트워크'는 범종단-대학생-학계-신도회가 긴밀한 소통을 하며 대학생 포교에 나서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다. 그간 종단이나 단체별로 각각 실시하던 포교를 하나의 체재로 집중하자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부산지역에서 교수와 신도회, 사찰 등이 연계해 실시한 대학생 포교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 교불련 측도 이를 적극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부산 교불련은 현직 교수들이 108 모임을 결성, 매월 1만원씩 후원금을 걷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기법회와 템플스테이를 열고 있다. 여기에 부산불교연합신도회가 공양을 지원하고, 홍법사 등 일선 사찰에서는 템플스테이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대불련 부산지역 동문회도 후원하며 원활한 대학생 포교가 이뤄지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3년 정도가 지나자 정기법회에 50~60명의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참석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

교불련은 대학불교네트워크에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연구하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에 공문을 보내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학불교네트워크는 그간 각개전투로 진행됐던 대학생 포교에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 의식이다. 함께 살아가고 운영한다는 의식 없이는 장기적인 조직이 되지 못한다. 교불련이 추진하는 대학불교네트워크가 대학생 포교 활성화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

직선제 법안 상정, 허언되지 않길

대중공사에서의 직선제 선호여론을 반영해 지난 6월 중앙종회에서 구성된 총무원장직선선출제특별위원회가 7월 12일 첫 회의를 열었다. 첫 회의에서 특위위원들은 11월 중앙종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하고 월 3회의 활발한 회의를 열기로 했다.

특위 위원들의 열의 넘치는 결정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그동안 대중공사 등에서 직선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던 허정 스님이 위원에서 해촉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허정 스님이 '자의에 의해서 참여하셨느냐'는 문자를 특위 위원들에게 보낸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허정 스님의 변에 의하면 특위 위원 중 특위 활동에 관심이 없는 스님도 일부 포함됐으며 이에 특위 구성에 의구심이 들었다고 한다. 스님의 말은 특위 위원들 사이에서는 모욕감을 주었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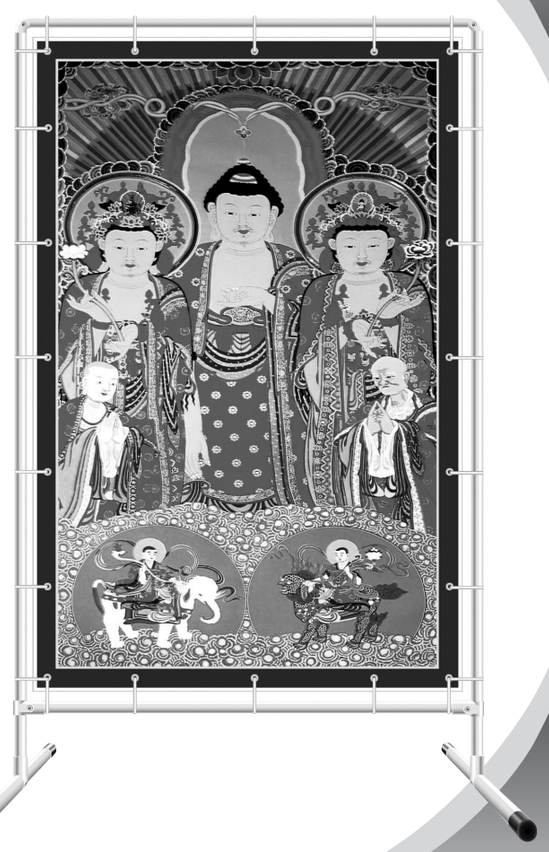
위원장 태관 스님은 "특위에 대한 불신과 어용집단으로 보는 인식 하에 함께 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한쪽으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종도들의 직선제에 대한 열망과 특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다시 돌아보자면 직선제 특위는 한가지 목표를 지니고 구성됐다. 바로 종회에 직선제에 대한 훌륭한 안건을 성안해 상정하는 것이다. 이미 종회에는 종헌종법특위에서 성안한 염화미소법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선택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직선제 특위에서 남은 4개월 동안 치열한 연구와 논의, 또 여론수렴을 통해 11월 종회에 훌륭한 안건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품설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